

지질공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호 추진

일본에는 **지질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들은 일본 열도의 이야기를 말하고 지구의 진화에 대한 지견을 제공해 줍니다. 지질공원은 이런 지역 고유의 지질학적 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질공원에서는 지구와 사람의 긴밀한 관계, 지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카치 시카오이 지질공원은 다이세쓰산 국립공원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시카오이초 전체가 지질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질공원에는 종상화산이 모여있고, 영구동토 지역과 광활한 평원이 있습니다. 또한, ‘**에조우는토끼**’ 등 희귀 동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46 곳의 지질공원이 있으며, 홋카이도에는 도카치 시카오이 지질공원을 포함해 6 곳의 지질공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지질공원 중 10 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으며, 홋카이도에서는 도야호 우스산과 아포이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